

<10월 17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삼귀의

·찬불가

·청법가

·법문 : <관세음보살의 열 가지 서원>
법성스님(김천시 중증장애인지원센터장)

·새신도 환영

·합창단 음성공양

·정근

·발원문 봉독

·사홍서원

※예정되어 있던 혜원스님의 <선과 현대생활> 법문은 법성스님의 <관세음보살의 열 가지 서원>으로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_)_

<초청강좌 안내>

날짜	법회주제	법사
10. 24(토)	불자와 건강	태석기 교수 (동국대학교 의료원장)
10. 31(토)	사찰순례	교법사 진우스님
11. 07(토)	생활법문	정각원장 해주스님
11. 14(토)	진언수행입문	교법사 진우스님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법학관 16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금일 교리반 강의실은 법학관 163호입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에 드립니다>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대각전 원불봉안 안내>

염원을 담아 願佛 봉안하시고
기도성취와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세요.

1人 1佛 - 100만원 이상(분납가능)

금년 봉안 법회는 12월 5일(토)에 봉행하오니 원불봉안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故박세원 학우 천도재 봉행



故박세원 학우의 49재 기도를 12일(월) 봉행하였습니다. 총장스님을 비롯한 가족과 교수님, 학우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를 원만하게 회향하였습니다.

보시동참

☎ 10월 12일 불전 공양 ☎

₩3,239,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보광스님, 해주스님, 진우스님, 고목훈, 구리시효자봉비어, 권혁재, 김기현, 김동연, 김문자, 김유진, 김해양, 남대문 효자손만두, 남창강, 박선재, 박성진, 박영태, 백광호, 손정식, 안대준, 우동인, 유종순, 육세원,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덕수, 이봉자, 이성부, 이수준, 이인주, 장수연, 정보현, 정찬근, 정혜중, 조덕빈, 주호빈, 주호성, 천대적심,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440,00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 기도 ☎

김보연, 김봉경, 김성희, 김영매, 노경록, 박병준, 석은정, 손승아, 엄정은, 이병희, 이현주, 이호형, 정애순, 황상필

☎ 공양 보시 ☎

❖ 불단 떡 : 정연정(교육연구원 교수)

❖ 불단 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소득공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은
보시봉투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딱 한번만!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10월 17일

제306호(週刊)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기쁨을 주어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잡보장경]

10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13일(월)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대종사를 모시고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230여명의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화선과 송화두의 차이>라는 주제로 귀한 가르침 주셨습니다. **정각**

추계 사찰순례를 우리 같이 떠나요 ♪

사찰순례와 함께 방생기도를 하며 자비희사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아요!



- ✿ 일 시 : 불기 2559. 10. 31(토) 08:00~18:30
- ✿ 장 소 : 충남 서산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지
- ✿ 일 정 : 정각원 출발→간월암(방생기도)→점심공양(간월암)→간월암 자율 참배기도→서산 마애삼존불상→보원사지→보원사 참배→정각원 회향
- ✿ 참가비 : 50,000원(방생기도 비용 포함)
- ✿ 인 솔 : 교법사 진우스님
- ✿ 대 상 : 정각원 신도(선착순 접수)

☎ 2260-3017~9

관세음보살의 열 가지 서원

법성스님

(김천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장)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독송되는 경전이 바로 『천수경』입니다. 그러므로 『천수경』은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대비주의 앞 계청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십원문(十願文)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계청 전체를 살펴보면, 큰 자비의 구세주 곧 대자대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십원문(十願文)과 육향문(六向文)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열한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관세음보살과 아미타불에 귀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대자대비를 서원하고 성취하고 행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인 바, 관세음보살의 위대함을 찬탄하고 독송자 역시 그 가피력에 의지하여 원만하게 성취하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곧 십원문(十願文)과 육향문(六向文)은 수행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서원의 내용입니다. 십원문은 자리(自利)에 해당하는 서원을 제시한 것이고, 육향문은 이타(利他)에 해당하는 서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대자대비의 신묘한 공덕행을 성취하고 행하시는 관세음보살 그 화신의 보살 및 그 본원의 부처님이신 아미타불에게 지성으로 귀명함을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 곧 ‘계청’ 전체를 독송하면서 대비주의 독송자는 대비주를 독송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게 되고, 다시 한 번 대승의 불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원을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십원문입니다. 독송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서원중에서도 특히 자리(自利)에 해당하는 서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십원문 전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제가 조속히 일체법 알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제가 조속히 지혜의 눈 얻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제가 속히 일체 중생 제도하기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기를 원합니다.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知一切法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智慧眼

南無大悲觀世音

願我速度一切衆

南無大悲觀世音

願我早得善方便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南無大悲觀世音
제가 속히 반야의 배 타기를 원합니다.	願我速乘般若船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南無大悲觀世音
제가 빨리 고통바다 건너기를 원합니다.	願我早得越苦海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南無大悲觀世音
제가 속히 계정도 얻기를 원합니다.	願我速得戒定道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南無大悲觀世音
제가 빨리 원적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願我早登圓寂山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南無大悲觀世音
제가 속히 무위의 집에 들기를 원합니다.	願我速會無爲舍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	南無大悲觀世音
제가 빨리 진리의 몸 이루기를 원합니다.	願我早同法性身

이 열 가지 서원은 달리 『천수경』의 별원이라고도 합니다. 굳이 육향문과 구분해서 자리의 서원문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승의 보살에게 있어서 자리행은 자신만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타행을 성취하는 것이 곧바로 자리행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3원의 중생제도와 제4원의 방편성취는 이타행의 성취를 자리행의 성취로 같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십원문은 자리아타의 서원을 제시하는 부분이고, 육향문은 그 성취의 결과로 얻어지는 공덕행이라고 보아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든, 자리와 이타가 서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자리가 이타이고 이타가 바로 자리인 것입니다.

이 점에 의거하여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리는 이타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자리행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리(自利)하고 난 뒤에 이타(利他)를 행한다고 말하거나, 또는 자리와 이타는 겸행(兼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남을 돕지 않고서 내가 잘 되는 길은 없습니다. 흔히 입신양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랫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받쳐주지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윗사람이 당겨주지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가는 동료가 북돋아주지 않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윗사람을 밀어주고, 아랫사람을 당겨주고, 동료를 북돋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하는 것을 자리(自利)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원의 첫머리에 일체법을 알 것과 지혜의 안목 성취할 것이 먼저 제시되는 것입니다. 일체법의 공성(空性)을 알아야만 동체대비의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그것을 바탕으로 중생제도와 방편성취의 이타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리행 역시 이타행을 목적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타자리(利他自利)의 서원을 성취하는 버팀목으로서 관세음보살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원을 세움에 있어 반드시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귀의 하옵나니(南無大悲觀世音)”라는 단서를 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살을 염하고 부처님을 염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리니 이타니 하는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라면! 이 한 구절만 기억하시면 삶에 장애가 없습니다.